



# “유럽같은 공수전환이 목표”

## 허정무 감독 “남아공행, 세트피스 보완에 달려”

7회 연속 월드컵축구 본선진출을 위해 ‘제주도 전훈’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빠른 공수전환과 세트피스 방어력 끌어올리기에 초점을 맞추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대표팀 숙소인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에선 허정무 감독이 강사로 나선 축구 강의가 펼쳐졌다. 수강생은 태극전사였고, 강의 제목은 ‘빠른 공수 전환’과 ‘세트피스 방어력 높이기’였다.

이런 아침부터 성산 일출봉에 올라 정신자세를 가다듬었던 대표팀 선수들은 오후

훈련 대신 허 감독의 ‘족집게’ 비디오 분석을 통해 이미지 트레이닝에 열을 올렸다.

허정무 감독은 본격적인 전술 훈련에 앞서 김세운 축구협회 비디오 분석관이 준비한 다양한 화면을 보면서 선수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허 감독은 지난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3차 예선을 치르면서 끝 결장력 부족과 상대팀 세트피스 수비에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힘겨운 시절을 경험했다.

이 때문에 대표팀은 지난해 6월 요르단 원정에 이은 터키 전지훈련에서 수비수들의 강한 몸싸움과 세트피스 방어훈련에 역점을 두고 탐금질을 해왔다.

3차 예선을 무사히 통과하고 최종예선에 서 2승1무(승점 7)의 상승세로 돌아선 허 감독은 ‘강호’ 이란과 4차전을 앞둔 상황에서 선수들의 전술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비디오 교육으로 실전 훈련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허 감독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더 가다듬어야 한다”라며 “세트피스에서는 우리의 공격도 문제지만 수비를 할 때 취약점도 빨리 보완해야 한다”라며 전지훈련의 방향을 설정했다.

## ‘FIFA 올해의 선수’도 호날두

**EPL 선수론 첫 수상·여자부선 마르타 선정 발롱도르 등 작년 축구 개인상 ‘그랜드슬램’**

‘특급 원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4·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가 지난 2007-2008시즌 맹활약을 앞세워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다.

호날두는 13일(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플레이어 갈라’에서 2008년 FIFA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이상이 제정된 1991년 이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클럽 선수로는 첫 수상자다. 또 포르투갈 선수로는 2001년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던 루이스 피구에 이어 두 번째.

호날두는 전 세계 감독과 주장들이 한 표씩을 던진 투표 집계에서 1위표 136표와 2위표 77표, 3위표 24표 등 총 935표를 얻어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했다.

반면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아르헨티나의 2연패를 주도한 리오넬 메시(678점·FC 바르셀로나)와 지난해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08) 때 스페인 우승을 이끈 페르난도 토레스(리버풀·203점)는 호날두에게 크게 뒤졌다.

또 5명의 최종 후보 중 2007년 수상자 카카(AC 밀란·183점)와 유로2008 최우수선수(MVP) 사비에르르네스(바르셀로나·155점)는 그 뒤를 이었다.

호날두는 특히 앞서 프랑스 축구전문지 프랑스풋볼이 선정하는 2008년 발롱도르(Ballon d'or)와 유럽축구연맹(UEFA) 올해의 선수, 영국축구선수협회(PFA) 최우수선수, 유럽파인 골든부츠, 국제프로 축구선수협회(FIFPro) 올해의 선수상을 독식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센터포워드나 아닌 윙포워드인 호날두는 현란한 드리블과 대포알 같은 슈팅, 무회전 프리킥을 앞세워 UEFA 챔피언스리그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유의 ‘더블 우승’을 이끌고 두 대회 모두 득점왕에 올랐다. 챔피언스리그 8골, 프리미어리그 31골, FA컵 3골 등 무려 42골이나 몰아쳤다.

지난 시즌 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에 시달리며 발목 수술을 받았던 호날두는 부상을 딛고 지난해 12월에는 박지성(28)과 함께 FIFA 클럽월드컵에서 맨유에 첫 우승컵을 안겼다.

그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2008년에 가장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감독님은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며 알렉스 퍼거슨 감독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편 브라질 대표팀의 미드필더인 ‘여자 펠레’ 마르타가 3년 연속 올해의 여자 선수로 뽑혔다.



〈FIFA〉



〈발롱도르〉



〈유럽 골든 부츠〉



〈FIFPro〉



〈UEFA〉

서툰  
정상을  
향하여



13일 서울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벌어진 2009 요넥스코리아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남자단식 예선에서 한국 김시량이 대만 쑤 치후룬에게 스매싱하고 있다.

### 15~22일 탁구 대표 선발전

오는 4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2009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인전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발전 2차 대회와 3차대회가 강원도 흥천종합체육관에서 잇따라 열린다.

15~17일 개최되는 2차 선발전에는 지난 주 끝난 종합선수권대회 단식 32강 진출자와 팀당 추천선수 2명, 지난해 세계, 아시아 주니어선수권대회 대표 등 총 88명(남자 43명, 여자 45명)이 출전한다.

이들은 네 개조로 나눠 풀리그를 치르고 각조 1~4위가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3차전에 나간다.

3차 선발전은 2차전을 통과한 16명과 추천 선수 4명, 올림픽 대표 3명 등 남녀 각 23명이 참가한다.

### 프로배구 한선수·황연주 MVP

대한항공의 세터 한선수와 흥국생명의 라이트 공격수 황연주가 프로배구 올스타전 투표에서 각각 남녀부 최다 득표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13일 발표한 NH농협 2008~2009 프로배구 V 리그 남녀 올스타 투표결과 남자부 K 스타팀에 소속된 한선수는 총 유효투표수 4만1천572표 중 1만6천303표를 얻어 팀동료 김학민(1만5천199표)을 따돌리고 최다득표했다.

여자부 V 스타팀으로 뛰는 황연주는 1만6천845표로 역시 동료 김연경(1만3천362표)을 제치고 남녀 통틀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 이·청·용

‘떠오르는 스타 50인’

영 언론 실바 등 선정

이청용(21·FC서울)이 영국 언론으로부터 ‘떠오르는 축구스타 50인’에 뽑혔다.

이청용은 영국 일간 신문 더 타임스가 13일(한국시간) 보도한 떠오르는 축구스타 50인에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브라질의 공격형 미드필더 에르네스토(상파울루)를 시작으로 스페인의 공격수 다비드 실바(발렌시아) 등 이미 세계 축구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더 타임스는 “전 세계 리그에서 1년 동안 성장 가능성이 큰 선수들을 뽑았다”고 밝혔다.

40번째에 이름을 들어 있는 이청용에 대해서는 “정열적인 20세의 원이는 한국에서 가장 재능있는 젊은 선수이며 국가대표팀에서도 된다. 유럽 진출이 거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청용은 지난해 K-리그 준우승 팀 서울의 주축 선수로 뛰면서 25경기에 출전해 6골6도움을 올렸다. 20세 이하(U-20) 청소년대표를 거쳐 지난해에는 베이징올림픽 대표로 활약했다.

이청용은 다음달 11일 열린 이란과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4차전을 원정경기를 앞둔 허정무호에 승선해 서귀포 전지훈련에 참가 중이다.

### 광주우수협 한승남 회장 재추대

한승남 광주우수협회 회장 (SG환경테크(주) 회장·사진)이 앞으로 4년간 더 협회를 책임지게 됐다.



우수협회는 최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제4대 회장으로 한 회장을 재추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협회를 맡아온 한 회장은 전남 전국체전서 종합 2위를 기록하는 등 우수 활성화에 앞장 서왔다.

한 회장은 “우수가 광주 효자종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인재 육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14일(수)

▲여자프로농구 <신세계 : KB국민은행> (16 : 50), <LG : KTF> (18 : 50·SBS스포츠)

▲프로농구 <오리온스 : 동부> (19 : 00·MBCESP·Xports)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문유 여행 89,000원**

제주도 여행 89,000원

북미여행 119,000원

유럽여행 179,000원

미국여행 153,000원

태국여행 89,000원

중국여행 119,000원

일본여행 149,000원

말레이시아 89,000원

싱가포르 89,000원

하와이 119,000원

뉴질랜드 149,000원

호주 119,000원

영국 149,000원

독일 119,000원

이탈리아 119,000원

스페인 119,000원

프랑스 119,000원

일본 149,000원

중국 119,000원

미국 149,000원

캐나다 119,000원

호주 119,000원

뉴질랜드 149,000원

말레이시아 89,000원

싱가포르 89,000원

하와이 119,000원

뉴질랜드 149,000원

호주 119,000원

영국 149,000원

독일 119,000원

이탈리아 119,000원

스페인 119,000원

프랑스 119,000원

일본 149,000원

중국 119,000원

미국 149,000원

캐나다 119,000원

호주 119,000원

뉴질랜드 149,000원

말레이시아 89,000원

싱가포르 89,000원

하와이 119,000원

전화: 064-744-1109

MY-ME 심는가발 마이미

가발 7주년 기념세일(최상품 39만원 구입가) **할인권**

정리 20년

주 224-2738

010-4809-2738